

# 보성, 5년간 악취 민원 대폭 줄었다

79건→21건...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시행 등 악취 사전 차단

악취 차단·주민 불편 해소·탄소중립 일석3조 효과 '특특'

보성군은 2019년부터 시작한 '악취 민원 제로화'를 향한 중장기적인 사업들을 통해 상승 악취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보성읍 내에서는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했으나, 관련 부서의 악취 저감 노력으로 2020년 79건이었던 전체 악취 민원 건수가 줄어 2024년 8월 말 기준 21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악취 민원 발생이 많았던 보성읍의 경우 전체 악취 건수가 '20년 27건에서 '24년 7건으로 줄었으며,

축사로 인한 민원을 제외하면 기타 악취 민원 0건을 기록하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다.

대표적인 악취 저감 사례는 산림산업과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이다. 축사 밀집 지역 인근의 보성을 우산교차로에서 장거리 교차로까지 2.1km의 미세먼지 숲길을 조성해 악취 유입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산책코스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민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던 이 사업의 가치와 효과를 인정받아 2022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악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축산 농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과에서는 64개의 농가에 10억원 규모의 축산악취 개선 사업과 가족 분뇨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10개 사업장에 악취 방지시설을 지원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비의 부숙도 검사 무료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돼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했다.

또한,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은 여름철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배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악취 저감 탈취제를 살포하고, 악취 배출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했다.

아울러,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중 민간 감시원을 채용해 관련 사업장에 대한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악취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등 군민들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0년 이래로 매년 악취 발생 횟수가 감소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주민들이 시원한 밤공기를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 보성 만들기에 매진하겠다"며 "악취 저감을 위해 관련 부서가 협력해 나가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 순천, 사회적경제 한마당 '희망 이음 페스티벌'

오는 12일, 20여 개 기업 참여하는 상생장터 병행

순천시는 오는 12일 조례호수공원 광장 일원에서 '희망 이음 페스티벌'을 주제로 '2024 순천시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 개념을 알리고, 기업 홍보·판매의 장 마련을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순천시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상생장터를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가치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여 개의 기업과 시민이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기부식, 비전 선포 퍼포먼스 등을 진행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자리적인 모두가 가치 실현에 대한 동참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매직&버블쇼, 청년밴드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과 사회적경제 퀴즈, 가치소비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 곡성,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곡성군은 지난 4일 소통마루에서 이귀동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련 부서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지속 가능한 농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역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조달하며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2024년 3월 7일 지역파트너플러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부서 간담회와 우수지역 벤치마킹, 그리고 지난 7월의 중간보고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했다.

최종보고회에서 지역파트너플러스의 정현섭 대표는 곡성군 농업의 현황과 먹거리계획 추진 현황,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소비 지역순환경제 구축으로 함께 행복한 곡성군'이라는 비전이 제시되었다.

또한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생산체계 구축',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보장', '먹거리 상생 도·농 협력 활성화', '함께하는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으로, 이를 통해 곡성군 농업과 지역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구체화했다.

## 제369회 보성자치포럼 도종환 시인 초청 강연 성황

보성군은 지난 4일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도종환 시인을 초청해 '시(詩)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제369회 보성자치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접사꽃 당신'으로 한국의 국민 시인으로 불리는 도종환 시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문화와 정치, 그리고 문화 정책의 최전선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이번 자치포럼은 자연과 삶,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로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는 도종환 시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보성문화원, 한국문인협회 보성지부,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 등 여러 사회단체와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연 내내 도종환 시인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시(詩)를 매개로 한 소통을 이어갔으며, 청중들은 시인의 시구를 통해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는 작은 순간들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광양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문헌집 북콘서트' 개최

11일, 광양 문학사 집대성한 희망문헌집 국역 해제본 발간 기념

광양시는 희망문헌집 국역 해제본 발간을 기념해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광양예술창고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문헌집 북콘서트'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희망문헌집은 고려시대부터 구한말 시기에 '희양'(광양의 예전 지명) 출신 인물들이 쓴 시문과 광양에 관계된 다른 지방 인물들이 쓴 시문을 모아 엮은 향토문헌집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 광양향교에서 간행한 희망문헌집은 기존에 한문으로 쓰여 있었으나 국역 해제 사업을 통해 한글로 번역했으며 '희양문헌집 上·下' 권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광양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광양시립국악단의 공연, 국역 사업 소개, 번역자와 함께하는 번역 이야기, 청중과 함께 읽는 희망

문헌집, 퀴즈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희망문헌집 국역 해제 사업에 참여한 김창호 원광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들이 행사 진행에 동참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희양문헌집 上·下' 권을 민원부서 및 읍면동, 도서관, 학교 등에 배포하고 국역본 전문을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에 등재해 광양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덕 문화예술과장은 "희양문헌집 발간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희양문헌집을) 광양 문화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문헌집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광양시민의



역사 문화적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의 기자

## 한예종 학생과 AI의 콜라보...구례 애니메이션·노래 화제

"정겹고 아름다운 구례의 모습을 너무도 잘 표현"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 만든 구례 애니메이션과 노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8월 구례군과 한예종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레지던시킴프에 참가해 1주일간 구례에 머물렀는데, 이때 느꼈던 구례의 아름다움과 정겨움을 애니메이션과 노래에 담아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한예종 학생



들과 인공지능 기술이 함께 만들어진 결과물은 정겹고 아름다운 구례의 모습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어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구례를 떠나는 학생들의 아쉬움을 담은 '안녕 구례' 노래는 ChatGPT와 SUNO AI로 만들어진 곡인데, 인공지능이 마치 구례를 직접 여행이라도 한 듯 힐링과 감성 여행지 구례의 이미지를 매우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과 노래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구례군 홍보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며 구례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urye\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례=오광범 기자

## 구례, 직원소통 10월 정례 조회 개최

소통·화합 시간 가져

구례군은 지난 4일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정례 조회를 개최했다.

군은 경직된 정례 조회 분위기를 탈피하고 '즐거움 한달의 시작'이라는 컨셉으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과배치훈 주무관의 수준 높은 기타 연주에 이어 한국종합예술학교 학생들이 구례를 여행한 후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애니메이션과 국제 우호 협력 도시인 중국 지주시 교환 공무원의 연수과정 이 담긴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또 기존 6급 공무원이 공무원 현장 낭독을 하던 방식에서 8-9급 공무원이 대표 낭독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줘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 마인드 함양을 유도했다.

김순호 군수는 "앞으로도 정례 조회가 의례적이고 경직된 분위기가 아닌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 광양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운영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온·오프라인 한 번에 통합 신청

광양시는 임신부(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각각 신청해야 했던 다양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온·오프라인 창구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임산부(임산부)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산제·철분제 지원 ▲맘편한 KTX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에너지바우처 등 정부 공통 서비스 15종(통합 신청 10종, 개별 신청·안내 5종)과 지자체 서비스 6종을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시 특화 서비스에는 임신부

주차증 및 엠블럼 제공, 임신·출산 시책 소책자 제공, 초인종 자석스티커 제공 등이 있다. 임신제·철분제 등의 물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임신부(임산부)가 희망하는 장소로 택배 신청이 가능하다.

택배 수수료는 임신부(임산부)가 부담하던 방식이었으나 광양시는 지난해부터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신부(임산부)는 온라인 신청(www.gov.kr)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항 출생보건과장은 "임신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 순천, 역전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 컨설팅 성료

역전싱싱해물홍탕&백탕 등 3가지 메뉴 개발

순천시는 비타민센터에서 '역전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 품평회'를 컨설팅 참여자, 역전시장상인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 품평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인 '역전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 컨설팅'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이번 컨설팅은 역전시장을 대표하는 특화 먹거리 개발을 위해 역전시장 상인, 역사권 생활권자 등 14명이 참여하여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두달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총 7차시로 역전시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 자원을 활용하여 역전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특화 세트메뉴로 ▲역전싱싱해물 홍탕&백탕 ▲싱싱냉소바&포차 온소바, 마나리오징어젓갈전 ▲수산조회비빔밥, 수산해물주머니타코 등 3가지를 개발했다.



특히, '마나리오징어젓갈전'과 함께 먹는 '싱싱냉소바&포차온소바'의 경우, 역전시장의 축제와 연계하여 실제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간편하고 시장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 밖에 구이에 치중되어 있던 시장 먹거리의 활용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역전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판매와 유통으로 이어지도록 홍보와 창업자 유치를 계획 중으로 역전시장을 사랑하는 많은 순천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 광양 국가사적 '마로산성' 긴급보수사업 착수

광양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국가사적 '광양 마로산성' 북측 성벽 일부에 대한 긴급보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붕괴된 북측성벽 일부를 보수하기 위해 국가유상청에 긴급보수비를 신청해 설계용역비를 확보했다. 공사비 산정 근거자료 산출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와 보수범위가 확정되면 붕괴된 석축을 해체하고 일부 구간(약 13m)을 복구하는 공사를 내년 1시행할 방침이다.

광양시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 사이 광양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지방 약화와 배부름 현상이 관찰돼 광양 마로산성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9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내 용역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국가유상 정비 국비사업(광양 마로산성)을 신청할 예정이다.

## 순천,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11일부터 시작

순천시는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1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그리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지난해와 달리 65세 미만 일반 시민은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접종을 원하는 일반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연령별 예방접종 시작일은 ▲75세 이상 어르신 10월 11일 ▲70세 이상 어르신 10월 15일 ▲65세 이상 어르신 10월 18일부터 연령대별 순

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면역 저하자 및 감염 취약시설 대상자도 75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10월 11일에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기관 방문 시 접종대상 여부 확인 및 중복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예방접종대상자는 가까운 지정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 찾기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 또는 순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조순의 기자